

12학년 2학기 성적 낮으면 대학 합격 취소될 수도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도 이후의 성적이 나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12학년 2학기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합격했다는 기쁨에 젖어 학업에 충실하지 않아 성적이 곤두박질했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을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답은 '그렇다'이다.



요하다. 우리 대학에 합격하면 우리는 학생의 고교 카운슬러에게 12학년 봄 학기 성적표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합격 통보를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conditional)로 12학년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12학년 2학기가 되면 대입원서도 모두 제출했겠다 학업 태도가 느슨해지기 쉽다. 어떤 학생은 얼리모 합격 통보를 받아 놓아서 더 자만해지기도 한다. 대부분 학생들은 12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2학기가 되면 게으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조기 전형(EA, ED, SCEA) 마감일은 보통 11월이고 정식 지원(RD)도 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원서가 마감된다. 그러다 보니 일부 수험생들은 '이제 대입 원서도 다 제출했고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데, 고등학교 내내 바쁘게 살았으니 남은 기간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12학년 2학기 성적 때문에 대학에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학생이 있을까? 있다. '미래교육연구소'에 따르면 A라는 학생은 UCLA에 합격을 했으나 12학년 몇 개 주요 과목에서 C를 받았다. 그 전까지 모두 A 학점을 받았었다. 이 학생을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12학년은 입시에 꽤 큰 영향을 끼친다. 성적뿐만 아니라 과외 활동도 마찬가지다. 프린스턴 대학은 12학년 성적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학생이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에서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

대학의 원서 마감일이 12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1학기 성적 증명서(mid-year report)를 추가로 보내라고 요구한다.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12학년의 수업 구성이 눈에 띄게 쉬우면, 대학 합격 가능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12학년 2학기에도 성적 관리는 물론이고 특별활동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좋다. 12학년 2학기는 결실을 맺는 시기다. 보람 있게 12학년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대학에서 받은 합격 통보는 '조건부 합격'이다. 고등학교 카운슬러는 12학년 1학기까지 성적표에 이어 2학기 성적을 포함한 최종 고등학교 성적표를 대학에 보내게 된다. 12학년 수업 구성의 난이도와 GPA가 11학년에 비해 내가 이룬 성취보다 대폭 낮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또한 학생이 학교로부터 심각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도전적인 과목을 선택하라

대학에 지원할 때 많은 학생들은 입학 사정관의 주목을 끌 만한 전략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교육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즈(ADMISSION MASTERS)' (blog.naver.com/amseoulkorea)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많은 대학들은 입학사정에서 학업적 성취가 중요하지만, 지원자의 다양한 면모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명문 대학들이 특히 그렇다. '종합적인 평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2019년 '전국 대학입시 카운슬링 협회' (NACAC)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지원 학생 중 평균적으로 3분의 2가 미국 내 4년제 대학에 합격했다. 명문 사립대학에 합격하기는 어려워도, 진학할 대학은 많아서 대학 진학 자체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다. 그러나 클래스에서 반드시 A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난이도의 수업들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전적인 과목들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AP 또는 아너 수업을 제공한다. 학교에서 난이도 높은 수업과 레귤러 수업 가운데 난이도 높은 수업을 택해 B를 받는 것이 레귤러 과목에서 A를 받는 것보다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다.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마다 커리큘럼 수준이 다른 것을 대학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답은 "입학 사정관들은 각 지역 내 고등학교들의 수

준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이다. 매년 여러 고등학교들의 정보를 다루고, 그들이 제공하는 수업의 프로파일과 학생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받아보기 때문이다. 테네시주 내쉬빌의 명문 사립 벤더빌트대의 입학처장인 더글라스 크리스티안센은 "우리는 지원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가장 수준 높은 수업을 듣고, 최고의 성적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클래스 구성과 학업적 성취도 두 가지 모두 고려한다."고 밝혔다.

도전적인 수업을 들으면서 강력한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이 학업적 근성과 대학 수준의 수업을 소화할 만한 능력을 겸비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하는 명문대학일 수록 선택한 수업의 구성과 성적을 함께 본다.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AP 과목을 많이 수강하는 것은 대입 원서를 돋보이게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능력과 의지를 무시하고 무조건 많이 듣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예를 들어 AP 영문학(English Lit) 수업에서 B를 받는 것이 레귤러 영어과목에서 A를 받는 것보다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만약 C나 D를 받는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부모의 실직이나 심각한 질병, 또는 가족의 사망 등 개인적인 시련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면, 대입 원서 어딘가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현명하다.

혹시 고등학교 저학년 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많은 입학 사정관들은 학년이 오를수록 성적이 향상되는 트렌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499	\$274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2년 현재 170.1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719	\$2,309
Asset Limit	\$15,510	\$30,95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